

東醫壽世保元の 文獻的 資料에 根據한 中風 治療에 대한 考察

李華燮·安鐸源*

Abstract

A Literatual Study on the Treatment of Stroke in The 《Dongyi Suse Bowon》

Lee Hwa-sub, O.M.D., Ahn Taek-won, O.M.D., Ph.D.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way of treatment and prevention the stroke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al therapy. I came to get some conclusions after considering literatures of 《Dongyi Suse Bowon》 and the conclusion as follows.

1. In 《Dongyi Suse Bowon》 the stroke of Soumin is caused by 'Interior cold disease'. When 'Interior Yin' can not descend, the disease arise. In this case Lee Je-ma used 'Sohabhyang-won(蘇合香元)', 'Chulaek-su(鐵液水)'.
2. The stroke of Soyangin is caused by 'Interior heat disease'. When the hot Qi of stomach and spleen is blocked, the disease arise. In this case Lee Je-ma used 'Dokhwal-jihwang-tang(獨活地黃湯)', 'Jihwang-baekho-tang(地黃白虎湯)'.
3. The stroke of Taeumin is caused by 'Dry and heat disease'. When the heat of liver and the dryness of lung is excessive, the disease arise. In this case Lee Je-ma treated with 'Woohwang-chungsim-hwan(牛黃清心丸)', 'Wonji-sukchangpo-tang(遠志石菖蒲湯)', and 'Kwache-san(瓜蒂散)' etc.

Above results indicate that not only taking medicine but also filling up the Healthy energy(保命之主) is important to treat stroke.

I. 緒論

東醫壽世保元¹⁾은 東武 李濟馬가 1894년 사람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分類하고 각

각의 體質에 따른 生理, 病理, 治療, 養生 등을 제시한 臨床醫學 著書로 儒學에 그 根本을 두고 人間과 그 人間이 속한 社會와의 關係를 重視하며, 性情의 調節과 知人正己를 통해 人間の 疾病을 治療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社會 속에서 調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方法을 提示하여 복잡한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教室

社會에서 살아가는 現代人이 慢性疾患과 成人病의 治療뿐만 아니라 豫防에도 活用할 수 있다.^{2,3)}

中風은 急激히 나타나는 意識障敝를 동반한 運動麻痺를 招來하는 症候群을 稱^{4,5)}하는데 王⁶⁾은 “人有卒暴僵仆 或偏枯 或四肢不舉 或不知人 或死 或不死 世以中風呼之”라 하여 卒然히 일어나는 意識障敝, 諸般 運動 및 感覺障敝 등 症候를 말하며 臨床의으로 西洋醫學의 腦卒中 또는 腦血管疾患과 類似하다.⁷⁻⁹⁾

中風에 대한 既存 韓醫學의 認識은 外感風邪의 原因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認識에서 漸次 內風으로 誘發된다고 보는 原因誘發的 中風의 概念에서 最近에는 進一步한 診斷方法을 통한 原因部位別 症狀 概念의 中風으로 바뀌고 있다.¹⁰⁻¹¹⁾

그러나 診斷方法의 發展에도 불구하고 中風은 病態生理에 있어서 善行而數變¹²⁾하는 本質로 인해 그 治療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豫後도 不良하여 높은 死亡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回復 後에도 社會的 復歸가 不可能한 경우가 頻繁함은 臨床的 問題點이 아닐 수 없어 豫防에 대한 關心이 점차 增加하고 있다.¹³⁻¹⁴⁾

東武의 中風에 대한 認識을 살펴보면 草本卷¹⁵⁾에서 中風을 牢獄의 段階로 區分하였다. 牢獄은 命脈實數를 八載로 나눌 때 7번째에 해당되며 危證으로 治療해야하며 治療 後에 後遺症이 남을 수도 있으나 적절한 藥物과 철저한 調養으로 蘇生할 수는 있는 질병이라고 하였다.

四象醫學에서는 疾病의 原因을 性情의 偏急과 平素 體質의 攝生의 不均衡에서 온다고 보고 있으며, 前驅症狀에서 發病 그리고 治療 過程에서도 體質病證的 管理를 통한 治療 方法을 강구하며, 여러 治療行爲를 통한 症狀의 一時的 好轉이 있다 할 지라도 先天的인 臟器의 大小에 따른 氣의 偏在와 性情의 失調를 改善하지 않는다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⁶⁻¹⁷⁾

이에 著者は 점차 增加하는 中風 患者에 대한 體質 醫學的 管理와 發病 前 豫防을 위한 基本的인 研究로 本 疾患에 대해 東醫壽世保元 內의 文獻的 資料를 根據로 考察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資料調査 및 研究方法

1. 資料調査

四象醫學을 創始한 東武 李濟馬의 著書인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醫源論, 少陰人病證論, 少陽人病證論, 太陰人病證論, 太陽人病證論, 廣濟論, 四象人辨證論 등의 편을 선택하여 각 體質別 中風의 治療와 性情管理 그리고 豫防에 대한 部分을 拔取하여 이를 研究資料로 삼았다.

2. 研究方法

- (1) 中風의 體質別 發生 原因에 대한 文獻資料를 定理하였다.
- (2) 中風의 體質別 治療 方法에 대해 文獻資料를 정리하였다.
- (3) 中風의 體質別 性情 管理와 豫防法에 대한 文獻資料를 定理하였다.

III. 本論

中風에 대한 國內의 보고에 있어서는 뇌경색이 43.9%, 뇌출혈이 34.4% 그리고 뇌지주막하출혈이 13.2%로 보고되고 있다.¹⁸⁾

腦卒中의 治療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腦卒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危險因子의 제거이고 그 다음 虛血性인 경우 梗塞이 생기는 부위를 초대 한으로 줄이기 위한 治療로 항응고요법, 혈전용해제, 혈액희석법 등을 사용하며, 急性期 腦壓을 떨어뜨리기 위해 스테로이드제제나 고삼투압제제가 쓰인다.¹⁹⁾

한편 出血性인 경우 일정한 容積을 유지하던 腦에 갑자기 局所 空間占有 病變이 생기는 경우우이로 인한 뇌압 상승이 일어나므로 뇌압 상승에 대한 처치를 하면서 일반적인 의식장애 환자에 준하는 고식적 지지요법을 행하게 된다. 出血의 정도에 따라 保存的 治療와 手術的 治療를 행하게 되는데, 出血로 인한 뇌압 상승이 生命을 위협하

는 경우 手術의 요법을 받게 된다.¹⁹⁾

東武의 中風에 대한 認識을 살펴보면 草本卷¹⁵⁾에서 中風은 牢獄의 段階로 구분하였다. 牢獄은 命脈實數를 八截로 나눌 때 7번째에 해당된다. 이것은 中風이란 병을 위험한 段階인 危症으로 認識하고 바로 治療해야하며 治療 후에 後遺症이 남을 수도 있으나 蘇生할 수는 있는 病으로 보아 醫藥을 이용하여 積極的으로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中風에 대한 認識은 〈少陽人病證論〉에 잘 표현되어 있다. 少陽人 中風으로 半身不隨나 一臂不遂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病으로 輕重에 관계없이 安靜과 服藥으로 스스로 호전되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하였고,¹⁸⁾ 또 中風은 매우 심한 病으로 그 治療法에 크게 期待하지 말고 調養을 爲主로 하고 服藥은 다음이라 하여¹⁸⁾ 中風의 治療에 있어 服藥 등의 治療的 方法뿐만 아니라 精神의 安靜이나 性情의 調養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病證 管理法에 대해 宋¹⁰⁻¹¹⁾은 體質的인 攝生管理와 體質病證 管理로 나누어 認識하였다. 이 두 가지는 相互 補完的인 關係에 있으며, 前者에는 四象人의 知行的인 調節方法과 體質飲食의 攝生方法이 包含되고, 後者에는 中風의 藥物處方이나 鍼灸의 施術을 통한 治療方法이 포함되는 것으로 臨床 症狀이 같은 中風이라도 體質에 따라 管理方法을 다르게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 中風의 體質別 發生 原因

四象醫學에서는 사람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네 體質로 구분하여 各各 性情의 偏差에 의해 臟局의 差異가 나타나고, 四象人 各各의 生理 病理的 差異가 있어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註1) 少陽人 中風 半身不遂 一臂不遂 末如何之疾也 重者必死 輕者 猶生 間以服藥 安而復之 待其自愈而不可期必治法之疾也 〈少陽人 泛論〉

註2) 中風 受病太重故 治法 不可期必 吐血 受病猶輕故 治法 可以期必 中風 吐血 調養爲主 服藥次之 嘔吐 以下 腹痛 食滯痞滿 服藥調養則 其病易愈 〈少陽人 泛論〉

우선 一般的인 疾病의 發生原因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의 類型으로 記述하고 있다. 첫째 深着한 性氣는 表를 損傷시키고, 暴發한 情氣는 裏를 損傷시킨다.¹⁸⁾ 둘째 性情의 逆動으로 升降이 失調되면 哀怒는 肝腎을 損傷시키고 喜樂은 肺痺를 損傷시킨다.¹⁸⁾ 셋째 強做하는 喜怒哀樂의 感情으로 因하여 本래의 眞情을 나오지 못하게 하여 病理的 狀態를 만든다.¹⁸⁾ 넷째 先天의 性을 調節하지 못하면 이것이 직접 臟腑에 影響을 미쳐 生死의 관이 될 수 있다.¹⁸⁾

이처럼 四象人의 모든 疾病의 原因이 性情의 偏急에서 온다고 보고 있는바, 中風의 原因도 性情의 偏急과 體質的 攝生의 不均衡에서 오는 慢性的 要因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며, 中風의 前驅症에서 發病까지의 進行過程도 四象人의 體質的 差異가 크게 作用한다고 보았다.

1-1 少陰人 中風의 原因

少陰人의 中風에 대한 原因을 직접 言及하지는 않았으나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에 蘇合香元¹⁷⁾을 少陰人

註3) 太陽人 哀心深着則 傷表氣 怒心暴發則 傷裡氣 少陽人 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胃大腸氣 少陰人 樂性 傷目膈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 喜性 傷耳腦髓氣 樂情 傷肺胃脘氣乎? 〈太陽人 病證論〉

註4)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 哀怒之氣 逆動則暴發而並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浪發而並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並於上則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並於下則脾肺傷 〈四端論〉

註5) 太陽少陽人 但恒成哀怒之過度而 不可強做喜樂 虛動不及也 若強做喜樂而煩數之 則喜樂不出於眞情而哀怒益偏也. 〈四端論〉

註6) 太陽人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 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四端論〉

註7) 蘇合香元

白朮 木香 沉香 麝香 丁香 安息香 白檀香 安息香 訶子皮 香附子 藜蘆 犀角 朱砂 各二兩 白檀香 訶子皮 香附子 藜蘆 朱砂半爲衣 蘇合油 入安息香膏內 乳香

中風에 活用함을 敍述하였다. 이는 少陰人에 있어 中風은 中氣와 비슷한 發病 樣相과 病理를 가지고 있음을 暗示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少陽人과 太陰人의 中風은 裏熱病證으로 火熱과 燥熱의 차이가 있을 뿐 급격히 進行되는 樣相이 既存의 中風의 病理와 藥物의 活用과 恰似하지만 裏寒病證의 特性을 가진 少陰人의 경우 中風의 進行 樣相과 病理도 體質的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고 治療方法에 있어서도 다르게 活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鎮心, 解毒, 散瘀血 作用과 抗血栓 效果¹⁵⁾가 있는 鐵液水를 少陰人 半身不遂에 活用한 예¹⁶⁾에서 少陰人 中風의 原因도 發病 樣相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中風의 發生 原因과 類似 部分도 있음을 알 수 있다.

少陰人의 中風 原因에 대해 宋^{10-11,16)}은 少陰人 裏病證을 應用하여 喜好不定하여 計窮力屈하면 心煩躁¹⁷⁾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裏陰이 下降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2 少陽人 中風의 原因

少陽人病은 火熱로 인해 症狀이 발현되므로 變化가 迅速하여 初症부터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¹⁸⁾ 中風은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

龍腦 各一兩 右細末 用安息香膏竝煉蜜 搜和千搗 每一兩 分作四十九 每取二三丸 井華水 或溫水下 此方出於局方 治一切氣疾 中氣 上氣 氣逆 氣鬱 氣痛 許叔微本事方曰 凡人 暴喜傷陽 暴怒傷陰 憂愁拂意 氣多厥逆 當用 此藥 若 概作中風 治 多致殺人 危亦林得效方曰 中風 脈浮身溫 口多痰涎 中氣 脈沈身涼 口無痰涎 今考更定 此方 當去 麝香 犀角 朱砂 龍腦 乳香 當用 藿香 尚香 桂皮 五靈脂 玄胡索 <少陰人病證論>

註8) 嘗見少陰人 半身不遂病 有醫教以服鐵液水得效 <少陰人病證論>

註9)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而 計窮力屈則 心煩躁也 少陰病 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此 非計窮力屈者之病乎 蓋 喜好者 所欲也 何故 至於計窮力屈而得此少陰病乎 何不早用君子寬平心乎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註10) 論曰 少陽人病 以火熱爲證 故 變動甚速 初證 不可

과 함께 同出一屬¹¹⁾으로 少陽人 裏病證 중에서 가장 危重한 병으로 認識하고 있다.

그러나 中風의 原因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中風보다 輕한 단계인 吐血에 대해 반드시 剛愎偏急한 마음과 사람과 競爭하여 다투는 일을 蕩濼해야 하고 淡食하라고 기술되어 있다.¹²⁾ 이것은 少陽人의 性氣的의 特性이 恒欲舉而不欲措¹³⁾하고 情氣的 特性이 恒欲外勝而不欲內守¹⁴⁾하기 때문에 그 氣像이 剽銳好勇¹⁵⁾하며 強武한 性質과 事務에 능한 材幹¹⁶⁾을 타고나는데, 이런 이유로 偏急한 마음¹⁷⁾과 남과 다투는 일이 쉽게 發生하며 자주 發生하면 中風이나 吐血같은 危重한 病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1-3 太陰人 中風의 原因

太陰人은 肝大肺小한 臟局을 가지고 있어 吸取之氣가 많고 呼散之氣가 적으며 放降하는 氣의 特性을 지녀 健康할 때는 怯心의 恒心과 汗液通脹의

輕易視之也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註11) 少陽人病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 五證 同出一屬而 自有輕重 浮腫 喘促 結胸 痢疾 寒熱往來 胸脇滿 五證 同出一屬而 自有輕重 <少陽人 泛論>

註12) 少陽人 吐血者 必蕩濼剛愎偏急與人并驅爭塗之 淡食服藥 修養如釋道 <少陽人 泛論>

註13)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而 材幹能於交遇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而 材幹能於事務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而 材幹能於居處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能於黨與 <擴充論>

註14) 太陽之性氣 恒欲進而 不欲退 少陽人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人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人性氣 恒欲處而不欲出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擴充論>

註15) 少陽人 體形 上實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四象人 辨證論>

註16)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而 材幹能於交遇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而 材幹能於事務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而 材幹能於居處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能於黨與 <四象人 辨證論>

註17) 太陽之人 雖好爲雄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放縱之心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雌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偷逸之心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亦或內守 若全好外勝則偏急之心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亦或外勝 若全好內守則物欲之心必過也 <擴充論>

完實無病的 條件을 지니는데 怯心이 심해지면 怕心을 거쳐 怔忡이 되며 陽強緊密하여 汗이 나지 않는 非健康 狀態^{註18)}로 변하게 된다.

太陰人 中風은 肝受熱裏熱病證^{16,17)}에 속하며 그 原因으로 侈樂無厭한 性情의 偏急으로 慾火가 外馳하여 肝熱大盛하고 肺燥太枯하여 發生하므로^{註19)} 構造的으로는 裏證에 속하고 機能的으로 燥熱病의 屬性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燥熱에 특성에 대한 記述은 內經의 '諸痿 枯涸 皺揭 皆屬於燥'을 인용하여 설명하였고, 太陰人 中에서도 面色이 黃赤黑色인 사람은 肝熱하고 肺燥하기 때문에 燥證이 많다.^{註20)}

1-4 太陽人 中風의 原因

太陽人에 대해서는 外形과 性情의 特性으로 體質을 判斷하기는 쉬우나 사람이 적어 分別하기 어려우며^{註21)} 處方이 다양하지 않은 것은 病證의 經驗과 藥理 作用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이며 이것은 太陽人의 數가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註22)} 라고 하였다.

太陽人은 一般的으로 肺大肝小하므로 呼散之氣가 旺盛하고 吸取之氣가 모자라서 病이 되는데^{註23)}

註18)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怯心益多則 放心控格而 物化之也 若 怯心 至於怕心則 大病作而 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太陰少陰人 體形 或略相彷彿 難辨疑似而 觀其病證則 必無不辨 太陰人 虛汗 則完實也 少陰人 虛汗 則大病也 太陰人 陽剛堅密 則大病也 少陰人 陽剛堅密 則完實也 <四象人 辨證論>

註19) 蓋 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 <太陰人 病證論>

註20) 論曰 太陰人 面色青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蓋 肝熱肺燥而 然也 <太陰人 病證論>

註21) 太陽人 體型 元不難辨而 人數稀罕 故最爲難辨也 其體形 腦椎之起勢強旺 性質疏通 又有果斷 其病 噎膈 反胃 解休證 亦自易辨而 病未至重險之前 別無大證 完若無病壯健人也 <四象人 辨證論>

註22) 論曰 藥驗 不廣者 病驗 不廣故也 太陽人數 從古稀少故 古方書中 所載證藥 亦稀少也 <太陽人 病證論>

註23) 氣液 呼於胃脘而 肺衛之 吸於小腸而 肝衛之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而 迭爲進退者也 是故 少陽人

衰心이 深着하면 表氣를 상하게 되고 怒心이 暴發하면 裏氣를 損傷시킨다.

2 中風의 體質別 治療 方法

2-1 少陰人 中風의 治療 方法

少陰人의 中風에 쓰이는 藥物로 蘇合香元^{註7)}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존 證治方의 蘇合香元에서 麝香, 犀角, 朱砂, 龍腦, 乳香 등은 除去하고 檀香, 茴香, 桂皮, 五靈脂, 玄胡索 등을 添加 하였으며 一般의인 處方에 있어 附子와 乾薑은 炮用하고 甘草는 炙用하며 黃芪는 炙用하거나 或은 生用하라고 하였다.^{註24)}

少陰人의 津液이 枯涸되어 생긴 便閉 症狀에 蜂蜜을 이용한 灌腸法^{註25)}을 活用하고 있으며, 霍亂에 活用한 熱冷^{註26)}은 中風患者의 嘔吐나 嘔下障礙시에 市中에 판매되는 患者用 流動食을 대신하여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少陰人은 腎大脾小한 臟局偏在로 發生되는 裏症의 陰化現狀을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이용하여 裏陰을 降氣한다.²¹⁾ 이런 治療法에 활용되는 處方으로 祛風散²³⁾, 鐵液水²⁴⁾ 등이 있으며 實驗的으로도 腦損傷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少陽人 中風의 治療 方法

少陽人은 脾大腎小한 臟局偏差에 의해 腎陰의 부족과 裏熱의 發生되는데 그 變動이 迅速하여 病證에 대해 쉽고 輕하게 對處하지 말아야 한다.^{註10)} 中風의 治療 處方에 대한 直接的인 言及은 <少陽人 泛論>에 獨活地黃湯^{註27)}을 기술하고 있다.

大腸 出水數 陰寒之氣 不足則 胃中 納水數 陽熱之氣 必盛也 太陽人 小腸 吸氣液 陰涼之氣 不足則 胃脘 呼氣液 陽溫之氣 必盛也 <太陽人 病證論>

註24) 少陰人藥 諸種 附子 炮用 甘草 炙用 乾薑 炮用 或 生用 黃芪 炙用 或 生用

註25) 陽明病 自汗出 小便自利者 此 爲津液內竭 大便雖硬 不可攻之 宜用蜜導法 通之 <少陽人 病證論>

註26) 禁進粥食 但進好熱冷 或米飲者 扶正抑邪之 良方也 宿滯之彌留者 得好熱冷乘熱溫進則 消火 無異於飲食 絕食二三四日 不必爲慮

註27) 中風 嘔吐 宜用 獨活地黃湯 吐血 宜用 十二味地黃

獨活地黃湯은 少陽人 裏病證의 逆症에 활용되는 處方으로 中風을 裏病證의 逆症으로 辨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少陽人病 裏病에 便秘가 나타나면 이미 重病^{註28)}이며 大便狀態를 觀察하여 病證의 進行을 把握하고 治療와 投藥 時氣를 결정해야 하며 하루정도만 이라도 便秘가 발생하면 胃熱이 이미 結滯한 것으로 地黃白虎湯을 투여 해야한다고 하였다.^{註29)} 그밖에 便閉를 풀어주는 藥으로 石膏를 제시하였다.^{註30)}

2-3 太陰人 中風의 治療 方法

太陰人 中風에 대해 裏證 燥熱病證으로 認識하여 熱多寒少湯에 藁本과 大黃을 添加한 처방^{註31)}이나 葛根解肌湯으로 裏熱病證을 관리하고 牛黃清心丸^{註32)}을 활용하였으며 그밖에 麝香^{註33)}, 瓜蒂散^{註34)} 등의 藥물을 급히 복용하거나, 遠志 石菖蒲末을 灌口하거나, 皂角末 三分을 吹鼻^{註35)}하는 方法 등이 활용되었다. 또한 太陰人 中에서 面色이 清

白하고 平素 虛寒證이 있는 中風患者는 熊膽散, 牛黃清心元, 石菖蒲遠志散을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瓜蒂散은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註36)}

裏熱病證이 풀어진 뒤에 表寒病證의 處方인 太陰調胃湯을 사용하여^{註37)} 治濕하면 呼散之氣가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후 體質病證에 대해 持續的으로 관리하여 後遺症에 대한 관리나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牛黃清心丸의 사용에 대해서는 急한 경우 사용할 수도 있다고^{註38)} 하였으나 기존 藥劑構成에서 白朮, 人參, 甘草, 神麴, 肉桂, 阿膠, 芍藥, 當歸, 川芎, 乾薑, 大棗, 清蜜, 柴胡, 茯苓, 雄黃, 朱砂 등은 除去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註39)}

2-4 非藥物治療法

太陰人 中風 患者의 경우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목이 뻣뻣하면 위험한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두손으로 患者의 양 손목을 잡고 좌우로 양 어깨를 흔들어주거나 혹은 患者의 양쪽 발목을 잡고 두다리를 굽혔다 폈다 해준다. 또 太陰人 中風 환자 의 어깨와 다리를 요동시키면 症狀이 好轉되지만 少陽人 中風 患者는 그 手足을 搖動시키거나 껴안아 앉히는 것도 좋지 않다. 少陰人 中風 患者의 경우 껴안아 앉히는 것은 괜찮으나 어깨를 흔들지는 말아야 하며 천천히 손발을 주물러 주는 것은 좋다^{註40)}고 하여 초보적이지만 中風 患者의 재

湯〈少陽人 泛論〉
 註28) 少陽人 裏病 大便 過 晝夜有餘而 不通則 自是 裡病明白 易見之初證也
 若復 大便 過 晝夜有餘而 不通則 危險矣〈少陽人 病證論〉
 註29) 少陽人 裡熱病 地黃白虎湯 爲聖藥而 用之者 必觀 於 大便之 通不通也 大便 一晝夜有餘而 不通則 可用也 二晝夜不通則 必用也. 少陽人 大便不通病 用地黃白虎湯 當日 大便不通者 將爲融會貫通 大吉之 兆也 不必疑惑而 翌日 又服二三貼則 必無不通〈少陽人 病證論〉.
 註30) 甘遂 表寒病 破水結之藥也 表病 可用甘遂而 不用石膏 石膏 裡熱病 通大便之藥也 裡病 可用石膏而 不可用甘遂 〈少陽人 病證論〉
 註31) 論曰 此病 非少陽人消渴也 卽 太陰人燥熱也 此證 不當用 腎氣丸 常用 熱多寒少湯 加 藁本 大黃 〈太陰人 病證論〉
 註32) 太陰人證 有 卒中風病 胸臆格格 有窒塞聲而 目瞠者 必用 瓜蒂散 手足拘攣 眼合者 當用 牛黃清心丸 〈太陰人 泛論〉
 註33) 中風(毒) 吐瀉 宜用 麝香 〈太陰人 泛論〉
 註34) 太陰人證 有 卒中風病 胸臆格格 有窒塞聲而 目瞠者 必用 瓜蒂散〈新定 太陰人 應用 要藥〉
 註35) 牛黃清心丸 非家家必有之物 宜用 遠志 石菖蒲末 各一錢 灌口
 因以皂角末 三分 吹鼻〈太陰人 泛論〉

註36) 面色青白而素有寒證 表虛者 卒中風則 當用 熊膽散 牛黃清心元 石菖蒲遠志散而 不可用 瓜蒂散〈新定 太陰人 應用 要藥〉
 註37) 熱勝則 裏證也 當用 葛根解肌湯 寒勝則 表證而 太陰重證也 當用 太陰調胃湯加升麻 黃芩〈太陰人 病證論〉
 註38) 素面色青白者 必急用 清心丸 古方清心丸 每每神效 目瞠者 亦急發而 稍緩死 眼合者 急發急死 然 目瞠者 亦不可以緩論而 急治之
 註39) 治卒中風 不省人事 痰涎壅塞 精神昏憤 言語蹇澁 手足不遂 等證 右二方 出於興信醫鑑書中 今考更定 此方 當去 白朮 人參 甘草 神麴 肉桂 阿膠 芍藥 當歸 川芎 乾薑 大棗 清蜜 柴胡 茯苓 雄黃 朱砂
 註40) 此證 手足拘攣而項直則 危也 傍人 以兩手 執病人 兩手腕 左右撓動兩肩 或 執病人足腕 屈伸兩脚 太

할에 대한 時氣와 方法을 체질에 따라 구분한 것도 향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中風의 體質別 性情 管理와 豫防法

기존의 證治醫學이 陰陽五行의 思想에 基本을 두고 人間을 自然의 커다란 秩序의 體系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에 반해 四象醫學은 儒學에 그 根本을 두고 人間과 그 人間이 속한 社會와의 關係를 重視하며, 性情의 調節과 知人正己를 통해 人間의 疾病을 治療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社會 속에서 調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方法을 提示하였다.^{10,11,16)}

또한 廣濟論에서 醫學을 발전시켜 집집마다 醫學을 알게 하고 사람마다 病理를 알게 한 연후에야 세상을 長壽하게 하고 元氣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하여⁴¹⁾ 一般인도 쉽게 體質醫學에 接近하여 個人의 疾病을 豫防하고 管理 할 수 있도록 하여 集團 保健에 대한 初期의 認識이 있었다.

東武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사람의 體質을 先天의인 稟賦에 의해 臟腑의 大小 偏差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⁴²⁾ 臟腑의 大小 偏差의 根本의인 差異를 발생하게 한 것은 性情에 의한 氣의 注激에 의한 것으로 記述하고 있다.⁴³⁾

그러므로 性情의 偏急을 警戒해야 되는데 각 體質別 性情의 특징에 따라 太陽人은 暴怒深哀를 少陽人은 暴哀深怒를 警戒해야하며 太陰人은 浪樂深喜를 少陰人은 浪喜深樂을 警戒해야된다.⁴⁴⁾

少陰人에 있어서 樂性이 深確하고 喜情이 促急한 性情의 特性을 자지고 있어 下降하는 喜樂의 氣로 인해 腎大脾小한 臟局의 偏急이 나타난다. 이런 性情의 偏急으로 恒心인 不安定之心을 寧靜하면 脆弱 臟器인 脾氣가 活發⁴⁵⁾해져 中風 등의 危急한 병이 發生하지 않지만 樂極不成하여 喜好不定⁴⁶⁾하면 計窮力屈하여 裏病證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進一步하는 精神的 노력으로 不安定之心을 寧靜하게하고⁴⁷⁾ 君子寬平心⁴⁸⁾가진다면 飲食善化한 完實無病한 상태가⁴⁹⁾ 된다.

少陽人의 中風은 裏病證 중에서 가장 危重한 병으로 剛愎偏急한 마음과 사람과 競爭하여 다투는 일을 蕩漉해야 하고 攝生에서는 淡食하라고 기술되어 있다.¹²⁾ 이것은 少陽人의 性氣의 特性인 恒欲舉而不欲措¹³⁾하고 情氣의 特性인 恒欲外勝而不欲內守¹⁴⁾하기 때문에 그 氣像이 剽銳好勇¹⁵⁾하며 強武한 性質과 事務에 능한 材幹¹⁷⁾을 타고나는데 怒極不勝하면 悲哀動中하여 恒心인 懼心이되

陰人中風 攙動病人肩脚 好也 少陽人中風 大忌攙動病人手足 又不可抱人起坐 少陰人中風 傍人抱病人起坐則 可也而 不可攙動兩肩 可以徐徐按摩手足 <太陰人 泛論>
 註41) 萬室之邑 一人 陶則器不足 百家之村 一人 醫則活人不足也 必廣明醫學 家家知醫 人人知病 然後 可以壽世保元 <廣濟論>
 註42) 人稟賦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四端論>
 註43)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

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四端論>
 註44)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 哀樂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四端論>
 註45)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 脾氣 即活也
 註46) 太陽人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註47) 余足之曰 太陰人 察於外而 恒寧靜怯心 少陽人 察於內而 恒寧靜懼心 太陽人 退一步而 恒寧靜急迫之心 少陰人 進一步而 恒寧靜不安定之心 如此則 必無不壽
 註48)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고 恐心에 이르면 大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健忘하게 되는데 健忘이 되면 險證이 된다^{註49)}. 그러므로 察於內하는 마음으로 懼心을 寧靜하게 해야 剛愎偏急한 마음과 사람과 競爭하여 다투는 일을 蕩滌할수 있고 大便이 善通한 完實無病의 상태가 된다.^{註47)}

太陰人의 中風은 喜極不服하여 侈樂無厭^{註45)}한 性情의 偏急으로 慾火가 外馳하여 肝熱大盛하고 肺燥太枯하여 發生하므로^{註19)} 察於外하는 마음으로 恒心인 怯心을 寧靜^{註46)}하게하고 侈樂을 警戒하고 嗜慾을 禁하며 心身을 恭敬^{註50)}한다면 汗液이 通暢하는 完實無病^{註47)}한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病症管理의 궁극의 목적은 體質에 대한 保命之主의 확보에 있는데, 保命之主는 각 體質에 적용되는 恒心과 完實無病의 조건에서 찾을 수 있으며, 恒心の 조건에서는 精神的으로 불안하지 않고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어야 하고, 完實無病의 肉體의 條件에서는 太陰人은 땀이 잘 나와야 건강하다고, 少陽人은 大便이 善通해야 하며, 太陽人은 小便을 잘 보면 되고, 少陰人은 陽強緊密하거나 消化가 잘 되면 되는 것이다.¹⁶⁾

이는 결국 四象人의 精神狀態, 小便, 汗, 大便, 消化狀態 등이 病, 無病의 條件을 가르는 중요한 인이 되며, 病症管理의 指標가 되고 이들 條件들이 무난히 수행되면 體質病症 管理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²⁾

一般的인 養生法에 대해서도 廣濟論에 驕奢한 사람은 반드시 侈色을 耽溺하고 懶怠한 사람은 반드시 酒食을 嗜好하며 偏急한 사람은 반드시 權勢를 다투고 貪慾한 사람은 반드시 貨財에 목숨을 바치니 偏急, 驕奢, 懶怠 그리고 貪慾이 減壽하게 된다. 그러므로 簡約, 勤幹, 警戒그리고 聞見이 得壽를 하게 한다고 하였다.^{註51)}

註49)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懼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 懼心 至於恐心則 大病作而 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註50) 凡 無論某病人 恭敬其心 蕩滌慾火 安靜善心 一百日則 其病 無不愈 二百日則 其人 無不完 恭敬德澤之箇箇受報 百事 然而 疾病尤甚

權色酒財에 대해서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인 牢獄에 비유하여 一身의 壽夭와 一家의 禍福이 여기에 연계되어 있다고 하였고,^{註52)} 특히 酒色을 강조하여 酒毒이 枯腸하고 色勞가 竭精하는 것보다 縱酒者의 厭勤其身하는 마음과 惑色者의 深愛其女하는 마음의 병이 酒毒色勞와 더불어 殺人하게 된다 하였다.^{註53)}

또 華佗의 養生術에서 小食과 적당한 일은 健康을 유지시킨다고 하였으며,^{註54)} 好賢樂善하는 마음이 天下의 병을 구한다고 하였다.^{註55)}

IV. 結 論

점차 增加하는 中風 患者에 대한 體質 醫學의 管理와 發病 前 豫防을 위한 基本的인 研究로 東醫壽世保元 內의 文獻의 資料를 根據로 中風의 體質의 原因과 治療法 그리고 性情 管理法을 研究檢討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1. 少陰人 中風의 原因은 裡寒病證으로 喜好不定하여 裏陰이 下降하지 못하여 發生하며 蘇合香元과 鐵液水 등이 活用되었다.
2. 少陽人의 中風의 原因은 裏熱病證으로 剛愎偏急하여 脾胃에 火熱이 鬱滯되어 發生하며 治方은 獨活地黃湯, 地黃白虎湯이 活用되었

註51) 驕奢減壽 懶怠減壽 偏急減壽 貪慾減壽 爲人驕奢 必耽侈色 爲人懶怠 必嗜酒色

爲人偏急 必爭權勢 爲人貪慾 必殉貨財.
註52) 權色酒財 自古所戒 謂之四堵墻而比之牢獄 非但一身壽夭 一家禍福之所係也 天下治亂亦在於此 若使一天下權色酒

註53) 酒色之殺人者 人皆曰 酒毒枯腸 色勞竭精 云 此知其一未知其二也 縱酒者 厭勤其身 憂患如山, 惑色者 深愛其女 憂患如刀 萬端心曲與酒毒色勞并力攻之而殺人也

註54) 華佗曰 養生之術 每欲小勞 但莫大疲 有一老人曰 人可日再食而 不四五食也 又不可既食後添食 如此則 必無不壽

註55) 天下之受病 都出於妬賢嫉能, 天下之救病 都出於好賢樂善,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

다.

3. 太陰人 中風의 原因은 燥熱病證으로 侈樂無厭한 性情의 偏急으로 慾火가 外馳하여 肝熱大盛하고 肺燥太枯하여 發生되며 治療處方으로 熱多寒少湯, 葛根解肌湯, 牛黃清心丸, 遠志石菖蒲湯, 瓜蒂散이 活用되었다.
4. 少陰人 性情 調養法은 浪喜深樂을 警戒하고 進一步하는 마음 자세로 不安定之心을 寧靜하게 하는 것이다.
5. 少陽人 性情 調養法은 暴哀深怒를 警戒하고 察於內하는 마음으로 剛愎偏急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6. 太陰人 性情 調養法은 浪樂深喜을 警戒하고 察於外하는 마음으로 侈樂을 警戒하고 嗜慾을 禁하며 心身을 恭敬해야 한다.
7. 太陽人 性情 調養法은 暴怒深哀를 警戒하고 退一步하는 마음으로 急迫之心을 寧靜하게 하는 것이다.

以上的 結果로 보아 中風의 治療에 있어 藥物의 服用도 重要하지만 體質的 調養을 위주로 保命之主의 確保에 重點을 두어 精神과 肉體를 完實한 條件으로 合致시키는 것이 重要하며, 향후 中風의 豫防과 治療를 위한 臨床 實際에 活用할 수 있는 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 8版 東醫壽世保元(1901年版 初版本 影印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9.
2. 宋一炳 :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四象醫學회지, 10(2) :1-14, 1998.
3. 宋一炳 : 四象人의 病證藥理의 成立科程과 그 運營精神, 사상의학회지, 8(1):1-16, 1996.
4. 郭隆璘 : 圖解 腦神經外科學, 서울, 第一醫學社, pp. 343, 385~394, 1992.
5. 大韓神經外科學會 : 神經外科學, 서울, 中央文化社, pp. 29, 55, 323-330, 1989.
6. 王安道 : 醫經彙集, 臺北, 五洲出版社, p.

- 15,1981.
7. 具本泓 외 : 心系內科學,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第2內科教室, pp. 147-190, 1981.
8. 具本泓 : 腦卒中의 東西醫學的 治療에 관한 研究, 서울, 中央醫學, 46(3):36-48, 1984.
9. 張伯臾 : 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212, 1988.
10. 宋一炳 : 四象醫學的 中風管理法, 한방성인 병학회지, 1(1):43-49,1995.
11. 宋一炳 : 四象醫學的 中風管理의 臨床的 研究, 사상의학회지, 8(2): 117-30, 1996.
12. 李 挺 :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下券, p. 370, 1983.
13. 吉利和 : 內科診斷學, 서울, 제일의학사, p. 348, 739, 1992.
14. 醫學教育研修 : 院臨床診斷學,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pp. 113-127, 1990.
15.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草本卷,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pp. 12,14, 1999.
16. 송일병 : 中風의 體質醫學的 治療法, 서울, 대한한의학회지, 6(2): pp. 134-135, 1985.
17. 이범준 외 : 四象體質病證 管理가 中風 初期患者에 미치는 效果에 대한 臨床的 研究 - 太陰人 患者를 대상으로 -, 사상체질의학회지, 13(3), 23-30, 2001.
18. 명호진 외 : 최근 국내 뇌졸중의 역학적 동행에 대한 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7:179-87, 1989.
19. 김범생 :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 대한의학협회지, 38(2):390-398, 1995.
20. 崔載永 외 : 四象醫學的 中風治療 157례에 대한 臨床的 研究, 사상의학회지, 10(2):431-453, 1998.
21. 金達來 : 四象醫學 病證論에 關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89:1(1), 41-47.
22. 이준희 외 : 중풍입원환자의 소양인, 태음인 체질병증유형에 관한 임상적 고찰, 경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3. 黃盛祿 : 少陰人 加味祛風散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 사상의학회지, 2(1):177-188,
1990.

24. 張賢鎮 : 鐵液水의 效能에 관한 실험적 연
구, 사상의학회지 3(1):173-183, 1991.